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최승*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라살아라네타대학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비하면 많이 작다.</p> <p>시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p> <p>대학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분반은 첫날 시험을 보고 반이 나뉘진다.</p> <p>수업은 8시부터 6시 25분까지이며 점심시간 휴식시간 합쳐서 3시간 쉴 수 있다.</p> <p>1대1 수업, 빅그룹, 소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하루 동안 수업을 받는다.</p> <p>빅그룹은 10명이 수업을 들었고, 소그룹은 5명이 수업을 들었다.</p> <p>매주 단어시험과 듣기, 문법 등 시험을 봤다.</p> <p>선생님들 모두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쳐 주셨다.</p> <p>숙제도 거의 매일 내주셨다. 숙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p> <p>에세이도 일주일에 두 번씩 제출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첫 번째 액티비티로 민도르섬에 갔는데...정말 힘들었다. 학교에서 돈을 지불해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나뿐만 아니라 갔던 사람들 모두 힘들어 했다. 일단 거기까지 가는 시간만 대략 12시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기서 제트스키, 유에포, 바나나보트는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타면 된다. 나는 이것만 타는데 대략 오만원 정도 들었다.</p> <p>학교에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마닐라 투어를 갔다. 마닐라 투어는 마닐라에 있는 유적지와 공원을 간다. 여기서 쓰는 비용은 딱히 없었다. 나머지 액티비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도르 섬에 갔던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운 편이다. 그래서 데오드란트를 꼭 챙겨가야 한다. 또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도 꼭 챙겨야 한다. 벌레에 물릴 수 있으므로 약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필리핀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안전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안전할 것이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숙소 규칙은 저녁10시까지 들어오는 것인데, 밤에는 위험하니 통금 10시가 적당한 것 같다. 숙소에서 청소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화장실은 번기가 좀 약한 편이었다.</p>
식사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 식당 (0)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 밥은 중고등학교 때 먹던 급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맛있게 잘 먹었다. 외부 식당도 이용을 많이 했는데 편의점과 주변 피자집을 몇 번 갔었다. 그리고 몰에 가서 밥을 많이 사 먹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는 기숙사 바로 앞에 있어서 3분도 안 걸렸다. 물이나 다른 곳을 가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택시 개념인 우보와 그랩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것 말고도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있지만 많이 불편하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식비, 면세	약 80만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필리핀에서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지사제를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전기 볼트가 다르므로 110v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선생님들에게 드릴 한국 선물을 가져가면 정말정말 좋을 것 같다.

편지지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전자사전 앱을 한국에서 미리 깔아서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정말 느리기 때문이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데오드란트를 가져가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첫째,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대화를 하다가 영어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먼저 찾기보다는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영어공부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단어는 아는데 스펠링이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단어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공부를 하러 나중에 다시 영어권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영어를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더 자신감이 낮아져서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많이 는 것 같다. 수업시간 외에도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고, 가끔 주말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내 인생에 영어공부 계획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영어공부는 꾸준히 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팝송노래

많이 찾아서 듣고 있고,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갈 것이다. 또한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둘째, 좋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우리 학교사람들을 만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려면 대외활동을 통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학교 사람들도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중에도 꼭 연락하고 지내고 싶을 정도로 다들 정말 좋았고, 덕분에 재밌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었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민드로 섬</p>	<p>마닐라 투어(대그룹)</p>
	
<p>수업시간 미션</p>	<p>주말에 친구들과 베니스 구경</p>



마지막 수업(소그룹)



졸업식 1분 스피치